

전국 대표 종합문화예술축제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

70년 역사...음악·무용·미술 등 8000여 명 참가 2개월 대장정 마무리
개인 19명·단체 4팀 최고상...7월3일까지 유치원생 ‘새싹 그리기대회’

광주일보사(회장 김여송)가 주최하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제70회 호남예술제가 최고상 시상식을 끝으로 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195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70년의 역사를 이어온 호남예술제는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축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광주일보는 창간 3년 후인 1956년 예술제를 창설한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경연을 이어오며, 지역을 넘어 전국예술제로 발돋움했다.

예비 예술가들의 탄생을 알리는 제70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이 29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최고상 수상자와 가족, 지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한 채 환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얼굴이 실린 광주일보 6월 27일자 지면을 펼쳐두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올해 예술제는 지난 5월 7일 관악 독주 부문을 시작으로 5월 28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 등에서 경연이 진행됐다.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부문에 걸쳐 전국에서 8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유치원생들이 참여하는 ‘새싹그리기 대회’는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은 축하사를 통해 “70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호남예술제를 개최한 결

과 지역 예술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린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며 “오늘 최고상을 수상한 학생들도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예술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성심껏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의 열정,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광주일보는 최대 100억 원 규모 기금을 목표로 하는 ‘호남예술제 재단’ 창립 등 미래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미술 부문 정수빈(마재초4), 시 부문 김소유(광주교대광주부설초4), 산문 부문 오서운(진제초4) 등 총 19명의 개인 수상자와, 현악중주 부문 중고연합팀(한가연 외 13명) 등 4개 단체가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발레 클래식 군무 부문에서 이례적으로 최고상을 수상한 태봉초(이루다 외 6명)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다. 이 팀의 일원인 오하린(태봉초4) 양은 “처음 무대에 설 때는 많이 떨렸지만, 상을 받고 나니 연습한 보람이 있다”며 “언니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 행복을 전하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술 부문 최고상을 받은 김현준(봉산초2) 군은 “하고 싶은 건 뭐든 하고, 되고 싶은 것도 뭐든 될 수 있는 ‘내가 꿈꾸는 세상’을 튜브를 타고 수영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며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제70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이 29일 오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을 비롯한 음악, 무용, 미술부문 최고상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편, 지난 1956년 시작한 호남예술제는 지금까지 75만 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며 전국을 대표하는 예술축제로 성장해왔다. 수상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아티스트로,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젊은 예술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예술적 기량을 펼치고 있다.

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았다. 파가니니 콩쿠르 3위에 올라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역시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대표 예술인이다.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로 불리는 고(故) 김남윤씨와 수많은 발레 스타들을 길러낸 김선희 전 한

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호남예술제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미술 부문에서는 호남예술제 출신 황영성·최영훈 작가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문학 부문 고재중·양성우 시인을 비롯해 소프라노 강숙자, 뉴욕 댄보덴스페스티벌의 김영순 안무가 등도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예술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창작·사유·표현 ‘회화의 고백’

최인선 개인전, 7월 25일까지 GIST 오룡아트홀

‘회화의 고백’은 회화에 대한 본질을 묻는 전시다. 최인선 작가에게 회화는 ‘생각을 탐구하며 사고를 조각하는 행위’로 수렴된다.

GIST 오룡아트홀에서 진행 중인 ‘회화의 고백’전. 지난 5일 개막해 오는 7월 25일까지 펼쳐지는 전시에는 모두 27점이 관객을 맞는다.

주제가 말해주듯 작가는 회화를 생명체의 그것으로 상징한다. 회화의 고백은 인간의 고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화가 최인선의 고백으로 전이된다.

홍익대 회화과 교수이기도 한 최 작가에게 회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가르치고, 창작하고, 사유하고, 표현하는 것들의 기본 토대가 회화일 것 같다.

작가는 90년대 미니멀 추상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겨울에 생산된 흰색’은 한국 미니멀 아트에서 중요한 작품이라는 화단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호 크기의 대형 추상 작품들이 전시장 벽면을 메운다. 압도하는 듯한 작품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각각의 작품들이 건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오래도록 작품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림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내면으로 전해오는 ‘회화의 고백’을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도 있겠다.

또한 1990년대 말 무채색 중심의 미니멀 회화의 흐름을 연계하면서도 그 토대 위에 형성된 추상회화의 다채로운 면모 등도 살펴볼 수 있다.

‘깊은 다이아몬드’는 검은 색면으로 다이아몬드를 구현했다. 작가의 사유와 감성이 응축된 작품은 단조롭지만 그 안에 인간의 삶과 일상을 담고 있다.

추상적인 이미지를 발하는 ‘절대 빛’은 작가가 내면에서 찾고 있는 어떤 빛을 표현한 작품이다. 회화의 고백이 다름 아닌 작가의 고백으로 들리고 유추되는 이유다.



‘절대 빛’

한편 최 작가는 “이번 전시는 작품을 매개로 질문을 던지고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관객들이 추상회화의 새로운 의미와 매력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동구 7개 별 따라 걷는 예술여행

동구문화관광재단, ‘동구칠성 예술골목 여행가이드북’ 발간

숨겨진 골목길들이 예술과 여행의 무대로 다시 태어난다.

광주시동구문화관광재단은 동구 골목길의 예술 공간과 이야기를 담은 ‘동구칠성 예술골목 여행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7개의 길, 7개의 색, 7개의 별’을 따라 걷는 예술 골목길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동구의 역사와 예술, 삶의 감성이 녹아든 7개 테마 코스를 소개한다. 충장로, 동명동, 금남로 등 동구의 상징적인 골목을 역사적 유산과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동구의 골목을 관광 콘텐츠로 재조명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감성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두배-추억의 별’, ‘메그레즈-인문의 별’, ‘알카이드-밤의 별’ 등 각 코스는 지역적 특성과 장소의 이야기를 결합해 구성됐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극장을 거닐며 추억을 떠올리고, 돌담길과 서점에서 인문학적 사유를 경험하는 등 평범한 골목 한 켠에서 고유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에는 예술 체험 코스, 트렌디한 감성 골목 탐방 정보도 수록됐다. 방문객들은 예술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참여하며 ‘일상 속 예술 여행’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QR 음성해설 서비스를 통해 배리어프리 여행 역시 지원하며, 지역의 정서와 색을 살린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동구칠성 예술골목 여행가이드북’.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로컬리즘 기반 콘텐츠로도 의미를 더한다. 가이드북은 동구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및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 배포된다.

문창현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가이드북은 단순한 관광 안내를 넘어, 동구 골목길이 지닌 이야기와 예술의 가치를 담아낸 특별한 여정의 안내서”라며 “지역과 여행자가 함께 숨 쉬는 골목 예술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영상편집 및 콘텐츠 제작’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지역 예술인을 위한 창작기획 워크숍 ‘영상편집 및 콘텐츠 제작’을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은 ‘2025 광주예술인 아카데미’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오는 7월 7일 참여 신청을 받는다.

프로그램은 AI 기반 동영상 편집 도구인 ‘캡컷’ PC버전을 활용해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전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익힐 수 있게 구성됐다. SNS 채널 운영 및 브랜딩 전략도 함께 다루며 예술인이 자신의 활동을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교육은 7월 22일~8월 14일(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까지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된다. 8월 21일에는 결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해 교육 결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참여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예비)예술인이다. 참여 신청은 이메일 접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